

백여명 울리고 종적 감춘 사기꾼 왜 못잡나

지산주택조합 사기범 3명 400억대 사기 사채업자 2개월째 행방 오리무중 피해자들 “수사 의지 없어”

11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지산주택조합 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과 50대 여성 사채업자의 수백억원대 투자가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물론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시민 전원을 수사경험이 전무한 일반 공무원들도 수시간만에 파악해 검진 또는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데, 수사관한을 가진 경찰이 피의자의 소재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지산주택조합 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은 10일 전에 잠적한 피의자들이 3명이나 뒀고도 불구하고 종적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주한 50대 여성 사채업자 사건도 첫 고소가 5개월전에 접수된데다 이후 잠적한 시점이 2개월이 지난다는 점에서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지산주택조합 분양사기 피해자는 총 117명으로 피해액은 무려 76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는 말에 속았으며, 조합 계약서에 적힌 지정계좌가 아닌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은 업무대행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에 있으며, 업무대행사 대표와 직원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행방을 찾고 있다.

광주서부경찰도 지역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 사채업자 A씨의 뒤를 쫓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A씨는 지역 건설업계 대표, 의사 등 지역 유력 인사들로부터 400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완벽한 종적을 감춘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사실이 신고된 지 2개월이 넘어선 지금, A씨의 소재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본인 소유의 광주시 서구 마름동 아파트를 매매했으며, 매매 과정에는 A씨 아이들의 지인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최초 사기 고소 당시에만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오래 전에 검거할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진척 없는 수사상황을 보며 “수사를 하고 있긴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지자체가 카드, 휴대폰 위치 추적, CCTV 등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이동 동선과 밀접접촉자를 찾아내는걸 보면 경찰은 무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20일 3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하루가 채 되지 않아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작-간접 접촉자의 수 등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내에 있는 것은 확실하며,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사 제대로 했다면 오래 전에 검거할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진척 없는 수사상황을 보며 “수사를 하고 있긴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지자체가 카드, 휴대폰 위치 추적, CCTV 등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이동 동선과 밀접접촉자를 찾아내는걸 보면 경찰은 무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20일 3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하루가 채 되지 않아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작-간접 접촉자의 수 등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내에 있는 것은 확실하며,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가격리 중간고사 못치른 광주 중고생 기말고사만으로 1학기 성적 평가한다

33번 확진자 동선 39개 학교 이들간 등교 중단 원격수업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돼 중간고사를 못 치른 광주 지역 중고생들은 1학기 성적을 기말고사만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광주 33번 확진자 동선 주변 39개 학교에 대해 이날부터 이들 동안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광주 33번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이동 경로가 겹치는 초·중·고 학생 39명을 자가-자율 격리 조치했다. PC방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고등학생 2명은 자가격리 조치로 2주간 등교할 수 없고, 시차를 두고 동선이 겹쳐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초·중·고 학생 37명도 2주 동안 자율격리하기로 했다.

이 중 중·고교는 총 23개교이고, 이번

주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는 11개교로 이 학교 학생 가운데 자가격리된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은 가능해도 시험은 온라인 시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가격리된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치를 수 없다”며 “인정점수 활용제도에 따라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하면 기말고사 성적으로 1학기 전체 성적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해 특정 학생 등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치르지 못할 경우 수행평가 등 학교별 인정점수 활용제도에 따라 성적을 처리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을 하는 해당 학교 학생 중 양성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24일부터 정상 등교가 이뤄진다”며 “현재까지 양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없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33번 확진자 동선 주변 학교 긴급방역 22일 광주시 북구 방역반원들이 일곡동의 한 학교를 방역하고 있다. 지난 20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광주 33번 확진자의 동선 주변 39개 학교는 23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북구, 구민 편의 증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광주시 북구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주민들로부터 찾는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구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주민-기업-소상공인 등이 직접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중에 규제 때문에 겪는 각종 불편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부문으로 구분되며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교통, 주택, 의료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생산 ▲신기술·

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총 5개 분야이다.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등록하거나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제안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오는 12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제안등급이 결정되고 심사자에게 북구청장상과 함께 부상이 지급된다.

북구는 우수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 승진 214명·전보 457명

광주·전남교육청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7월1일자)를 22일 단행했다. (인사명단 21명)

광주시교육청 승진은 3급 1명, 4급 4명, 5급 6명, 6급 이하 34명 등 모두 45명이고, 전보 183명과 공로연수-정년(명예) 퇴직 58명 등이다.

이번 인사는 정년(명예)퇴직-공로연수 등으로 발생하는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인사와 코로나19 현장지원 등 교육정책 현안사업 추진인력 확보와 결원 기관 충원을 위한 전보인사로 이뤄졌다.

양주승 금호평생교육관장의 공로연수

로 김선옥 노동정책과장이 3급으로 승진해 금호평생교육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권대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의 공로연수로 장문수 공보담당관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발령받았다.

4급 승진자는 공보담당관 한두석, 노동정책과장 양관철, 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김추근, 행정국 교육자치과 교육협력관 노정환 등 4명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행정국장 직무대리에 김준호 총무과장을 임명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3급 1명, 4급 4명, 5급 2

명, 6급 53명, 7급 105명, 8급 4명 등 169명이 승진하는 등 전보 274명, 공로연수-정년(명예)퇴직 등 191명, 신규임용 5명 등 총 639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행정국장 직무대리로 발탁된 김준호 총무과장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예산과장, 총무과장을 역임하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으며, 특히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직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과 소통 중심의 창의·혁신적 조직문화 구축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3급인 나주공공도서관장으로는 전만석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부원장을 승진 발

령했으며, 역시 3급 자리인 목포공공도서관장에 황성규 광양평생교육관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분청 주요 보직으로는 총무과장에 김도진 예산과장, 예산과장에 윤명식 행정과장, 행정과장에 오준경 홍보담당관, 재정과장에 박영수 교육전문위원실 수석 전문위원, 시설과장에 김준수 감리담당관을 순환 배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조직의 안정성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주요 부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무원 가운데 경력과 능력을 고려해 열정 있고, 청렴한 인재를 발탁하는 데 이번 인사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원대 민사소송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 예수교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등에 손해배상 등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으로 하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8일 대구 코로나19 첫 환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 적격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온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